

중공 악당으로 인해 중국 사회는 화목할 수 없다

사람마다 모두 상화롭고 조용한 생활을 즐기기를 원한다. 중공도 이른바 "화목한 사회"를 건설한다고 말한다. 중공 정권은 폭력과 거짓말로 유지해 가고 있다. 매 번 정치 운동으로 끊임없이 인민들의 공포감을 강화하며, 일부 사람을 본보기로 타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인민을 통치하는 목적에 도달한다. 매차례의 운동 모두가 먼저 거짓말을 만들어 여론을 조성한 다음 진상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 투쟁하게 한다. 마치 "문화대혁명", "6. 4", "파룬궁박해", "인권수호인사진압"처럼 먼저 당신에게 날조된 죄명, 큰 모자를 씌워 크게 타격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고, 진상을 모르는 수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저질렀지 모른다.

중국의 현황을 보라, 도덕이 붕괴되어 사람들에게겐 선념이 없다. 자신의 이익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못하는 짓이 없고 "검은 고양이던 흰 고양이던 쥐만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좌우명으로 되었다. 이러한 사회는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람마다 나쁜

짓을 따라 배우는데 어찌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은 중공 집권당이 조성한 것으로 전반 중국 사회는 중공에 이끌려 도덕이 없는 무서운 심연속으로 빠져 들게 되었다. 이 사회를 화목하게 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은 바로 중공악당 때문인 것이다.

량심 있는 중국인이려면 이런 현황을 개변시킬 책임이 있으며,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올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국내외에는 2700 여만 명이 탈당탈퇴하여 중공의 일체 조직에서 벗어나 사악한 중공 악당을 멀리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중국의 미래이며 중국의 희망이다. 중공 사교에 속아서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중공 사당을 탈퇴하게 되면 중공 사당은 곧 존재할 가능성을 잃게 된다. "물은 배를 띄우게도 하지만, 또 가라앉게도 한다(水能載舟,亦能覆舟)."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 매 중국인 모두가 진상을 잘 알고 이 역사적인 고비에 중공일체 조직에서 탈당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 평안을 확보하고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남겨 중국에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중공은 즉각 도살을 멈춰라!>

2007 년 9 월 6 일, 아태정상회담기간에 시드니 중심에서 "자유중국" 단체가 주체 하고



20 여개 단체가 협조한 <중공은 즉각 도살을 멈춰라!>는 주제로 대형집회와 시위행진을 거행했는바 그중 가장 관중들의 인

기를 끈것은 파룬궁학원생체장기적출을 폭로한 모형전시였다. 위 사진은 집회현장이고 아래 왼쪽 사진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이평(张而平)이고 오른쪽 사진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왕치문(王治文)의 딸 왕효단(王晓丹)이다.

강택민을 법에 의해 처단하자

중공 강택민건달집단의 법률평에 대한 참혹한 박해를 제지하기 위해 파룬궁학원들은 이미 전세계 33 개 국가와 지역에서 강택민 (江泽民)과 그외 주요 흉수들을 공식적으로 54 차례나 "대형학살죄"(群体灭罪),혹형죄(酷刑罪), 반인류죄(反人类罪)로 기소했다. 해외 매스컴에서는 이 사건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스당을 심판한 이래 최대의 인권소송안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과 인연있는 서양인

한 미국인 라씨는 지질탐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학생이었던 그는 2003년 6월 어느날 야영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레절이 바르고 인품이 좋은 남학생 안드루가 앞표지가 남색인 책을 골똘히 보고 있었다. 라씨가 그를 보고 뭘 보는가고 물으니 그는 이것은 “전법륜”책인데 찐,싼,런(真,善,忍)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교시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안드루한테서 이 책을 빌려 이틀도 안되어 다 읽었다.

라씨는 파룬따파를 배운지 반달도 안되어 술,담배와 마약을 끊었고 다신 남을 욕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다. 지금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그는 시시각각 찐,싼,런 표준에 따라 자신의 일언일행,일사일념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에 손색이 없으며 수련의 길에서 정진(精進)하고 있다.

학교신문에 안드루가 중공의 박해를 받고 있는 수천수만의 파룬궁학원을 성원하기 위하여 친히 북경에 가서 <파룬궁은 좋다.>고 쓴 현수막을 펼쳐들고 항의한 소식을 실렸다. 안드루의 정의의 행동에 감동된 라씨는 지금 전세계 선량하고 량심있는 사람들이 모두 중공의 박해를 제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수에도 끄떡없는 낡은 집 한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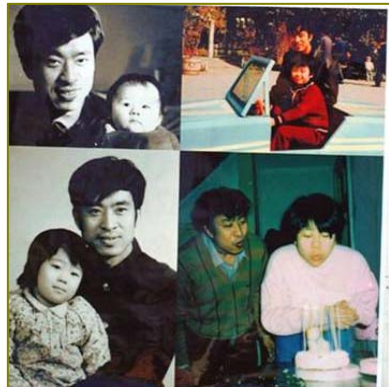
2006년 7월 15일, 호남성 칠주탄전 류가촌에 100년에 한번인 보드문 대홍수가 졌다. 산기슭을 허물며 불의 습격 해온 대홍수에 산아래 집들은 망가지고 온 마을은 물에 잠겼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독 낡은 집 한채가 손상없이 무사했다. 홍수 수위는 창문높이를 초과했지만 홍수는 이 집 문턱도 넘지 못했던 것이었다. 물에 밀려갔던 이 집 돼지는 5시간 후에, 닭은 6일 후에 저절로 집으로 되돌아왔다.

원래 이 낡은 집엔 파룬 따파를 수련하고 있는 늙은 할머니가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대홍수에서 파룬따 파가 대법제자를 보호해주었다는것을 잘 알고 있는 온 집식구들은 법륜대법과 법륜 대법 사부님께 련신 감사를 드렸다.



왕효단은 아버지를 구할 것을 호소

2007년 9월 2일, 아태경제협력정상회담(APEC)에서 왕치문의 딸 왕효단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아버지는 누구나 공인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중국 법륜대법연구회성원이었는데 중공은 그를 16년도형에 연도하여 지금 감옥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회의 모든 정의인사들에게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제지시킬 것을 호소합니다.>



폭로

박해

연변박해소식

■ 지난 9월 12일 아침 8시경에 연길시국보대대 악경들이 연길시대법제자 강소매(姜素梅)의 집에 뛰어들어 불법적으로 그를 체포하고 컴퓨터,타자기 등을 빼앗아 갔다. 강소매는 지금 연길시 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9월 13일 8시 30분경에 연길시 국보대대 악경들이 연길시 대법제자 장흥재(张兴财)집에 뛰어들어 불법적으로 그를 체포하고 법륜공진상 자료를 몰수했다. 장흥재는 지금 연길시구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룡정시법륜공학원 류봉(刘峰)은 지난 5월 20일 연길시북산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악보받은 당지부서기 정리신

안도현백하림업국북부공사 당지부서기 정리신(程里臣)은 법륜대법을 적대시하고 파룬궁창시인을 욕했다. 지금 그는 차사고로 특골 2대가 골절되었고 탐오죄로 판결받아 현재 병보석으로 집에 풀려 감시를 받고 있다.



토 | 막 | 소 | 식

▶ 내부소식에 의하면 금년 3월에 중국공안부장 주영강(周永康)이 전국각지에서 파룬궁을 엄격히 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지금 전국각지에서 파룬궁학원을 체포하고 박해를 가중화하는 악성사건이 련속 발생하고 있다.

▶ 미국 영주권 거주자 리진(李津)할머니는 청도로 친척방문을 왔다가 지난 6월 25일에 법륜공활동에 참가했다는 리유로 려권을 몰수당한후 미국의회의원들의 도움으로 귀국했다.